

디지털 혁신 가속화

대기업들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며 디지털 전환(DT)에도 가속을 붙였다.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등 구조 개혁 노력에 이어, 새로운 인재 영입뿐

아니라 기존 구성원들을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육성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간 '합종연횡'도 대폭 확대되는 분위기다.

제조 혁신 이끌 AI·빅데이터 전문가 육성

1 LG, 제조 디지털 전환 '속도'

'제조 AI 리더 과정' 마무리 데이터 활용 제조혁신 수행

LG전자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능통한 전문가를 육성해 제조분야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올린다.

LG전자는 15일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에서 '제조 AI 리더 과정' 수료식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AI 리더로 선정된 직원 약 20명을 비롯해 LG전자 생산기술원 제조혁신센터장 김병열 전무, 성균관대

학교 인공지능대학원장 이지형 교수, 인재개발원 이정환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제조 AI 리더 과정'은 LG전자가 성균관대학교와 협업체 지남해부터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현업에 복귀해 실무과제를 해결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제조 혁신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에는 4월부터 3개월간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진으로부터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관련 핵심 이론을 교육받고 현업 데이터를 활용한 문제해결 과제를 수행했다.

LG전자는 제조 분야의 디지털 전

환과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해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관련 역량이 필수라고 판단해 생산기술원 주도로 이 과정을 개발 및 진행하게 됐다.

LG전자는 생산기술의 디지털화를 위해 제조 AI 리더 과정을 포함해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답러닝, 장비 지능화,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등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며 4차 산업환경에 걸맞은 제조 경쟁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LG전자 생산기술원장 홍순국 사장은 "우수 인재를 지속 육성해 제조 혁신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조돈현 사장(모니터 바깥 왼쪽), 로라 롱코어 총괄부사장(모니터 안 왼쪽)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

2 SK, MS와 AI인재 키운다

'MS 런' AI·DT 교육 첫 도입 역량 높여 인재인 지 제고 기대

SK그룹이 세계 최고 수준의 AI(인공지능)와 DT(디지털전환) 관련 교육 콘텐츠 구축에 나섰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함께 한다.

SK그룹의 역량강화 교육 플랫폼인 '마이씨니(mySUNI)'는 16일 미국 MS의 테크놀로지 관련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마이크로소프트 런'(MS 런)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MS 런을 자사 AI·DT 교육에 도입한 것은 SK그룹이 처음이다. SK는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개발자, 엔지니어 및 빅데이터 전문가로 키우기 위한 전문가 인증 과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SK 구성원들의 AI·DT 역량을 높여 각 관계사별로 탑재인지(근본적 혁신)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마이씨니는 이번 파트너십으로 MS 런의 콘텐츠 중 SK 구성원들의 직무·역할에 적용가능한 콘텐츠를 재가공해 제공할 수 있게 됐다. MS가 실제 사용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교육 콘

텐츠화한 것이어서 SK 구성원들이 최신 기술 트렌드를 이해하고 이를 내재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마이씨니는 AI·DT 관련 교육 과정에서 MS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인 애저(Azure) 관련 자격증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 분석 등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외 AI·DT 특화 대학과 연계해 학위 과정이 포함된 마이씨니-MS 공동 커리큘럼도 개발할 예정이다.

마이씨니 CLO를 맡고 있는 조돈현 사장은 "이번 협력으로 MS가 보유한 클라우드, AI·DT 분야의 높은 전문성이 SK 구성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이씨니는 올해 1월 출범해 AI와 DT 외에도 행복, 사회적 가치, 리더십 등 9개 분야 약 640개 교육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다. 매일 약 8000명이 접속해 학습을 진행 중이며, 'S KMS(SK경영체계)', '사회적가치추구의 이해'와 같은 인기 과정은 이미 7000여명이 이상이 이수하는 등 호응도 높다.

/김재용 기자

2 KT-현대중 지능형 로봇 '맞손'

현대로보틱스에 500억 투자 스마트팩토리·자율주행 등 협력

엔택트(비대면)가 일상화되면서 로봇 활용도가 커지는 가운데 KT가 현대중공업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지능형 서비스 로봇을 시작으로 제조업에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KT는 16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현대로보틱스와 전략적 제휴를 위한 사업협력 계약과 500억 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는 구현모 사장이 KT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첫 전략적 투자로, KT

는 현대로보틱스의 지분 10%를 확보하게 된다. 아울러 KT는 현대중공업 지주와 스마트솔루션, 디지털 혁신 등의 공동 추진을 위한 사업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KT와 현대중공업그룹은 1년 전부터 5G, 인공지능(AI), 스마트팩토리 등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DX)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왔으며, 이번 계약으로 양사의 DX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T는 이번 500억원 투자로 현대로보틱스에 지분 참여와 사업협력에 필요한 인력을 교류할 예정이다. 또 KT가 보유한 디지털혁신 역량을 토대로 로봇 및 스마트팩토리 분야에서 현대로보틱스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양사는 이번 계약에 따라 지능형 서비스로봇 개발, 자율주행 기술 연구, 스마트팩토리 분야 등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KT는 지능형 서비스로봇과 자율주행기술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적용을, 현대로보틱스는 하드웨어 개발 및 제작을 각각 담당한다.

이를 호텔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등을 위한 식음료(F&B) 서빙로봇과 청소와 보안 기능을 탑재한 청소·패트롤 로봇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스마트팩토리 분야에서는 KT가 통신기술, 클라우드, ICT 솔루션 및 보안 관련 결합상품 등을 제공하고, 현대로보틱스는 로봇과 솔루션 등을 공급하기로 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세계 최고 디스플레이 솔루션 기업 도약”

LG디스플레이 경영목표 재정비

LG디스플레이가 고객가치 중심의 '최고의 디스플레이 솔루션 기업'으로 체질 개선에 나섰다.

LG디스플레이는 새로운 경영목표 수립 등 비전체계를 재정비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의 구조적 변화,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라는 시대상황과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치다.

새 경영목표는 '최고의 디스플레이 솔루션 기업(The Best Display Solution Company)'으로 정해졌다. LG디스플레이가 제품과 기술뿐 아니라 서비스, 프로세스, 시스템, 인재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이 돼 고객에게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사업범위를 패널 제조에 한정하지 않고,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생태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확장해 나가겠다는 청사진도 담았다.



이번 비전체계는 기존 경영목표였던 '글로벌 넘버원 디스플레이 기업'을 8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이제는 고객과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목표 아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라는 판단에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다. 아울러 LG디스플레이는 경영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내부 혁신을 강조하고, 전 임직원이 실천해야 할 행동방식으로 ▲고객가치 최우선 ▲인사이트 ▲민첩 ▲치밀 ▲철저 ▲열린 협업 등 5개도 새로 선정했다.

단, LG디스플레이의 비전인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 LG디스플레이가 펼쳐 갑니다'는 그대로 유지한다. 시대가 변해도 LG디스플레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고객의 꿈과 바람을 현실화시

키는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LG디스플레이는 새로운 비전체계를 바탕으로 ▲대형 OLED 대체화 ▲플라스틱 OLED 턴어라운드 ▲LCD 구조혁신 가속화 등 3가지 핵심 전략 과제를 차질 없이 달성한다는 각오다. 대형 OLED는 생산효율성과 시장대응력을 높여 'OLED 대체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며, 플라스틱 OLED는 핵심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업기반을 강화해 턴어라운드를 이끌 계획이다. LCD는 IT용 LCD 등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해 수익성을 높이는 구조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디스플레이 정호영 사장(사진)은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짙지만, 비대면·비접촉 생활문화 확산과 디지털 혁신 가속화는 산업에 새로운 기회요인이 될 것"이라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인재라는 자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목표와 행동방식을 통해 더 강하고 새로운 회사로 도약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최고 무선청소기”... ‘삼성 제트’ 英서 호평

소비자·전자제품 리뷰 매체 등서 성능, 사용성 등 '다재다능' 평가

삼성전자 청소기 제트가 프리미엄 청소기의 본고장인 영국 시장에서도 제품력을 인정받았다.

1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매체 '위치'는 "삼성 제트(사진)는 우리가 테스트한 최고의 무선 청소기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뛰어난 성능의 물걸레 기능을 더해 매력력을 배가시켰다"며 '베스트 바이(Best Buy)' 제품으로 꼽았다.

위치는 테스트를 통해 삼성 제트가 모든 바닥 타입에서 탁월한 청소 성능을 발휘했고, 특히 카펫 청소와 깊은 틈새의 미세먼지 제거 성능 역시 우수했다고 확인했다. 또 미세먼지와 알레르기 유발 물질 배출 차단 필터 시스템과 편리한 사용성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자제품 리뷰 전문 매체 '트러스티드리뷰'도 삼성 제트를 "올해 최고의 무선 청소기" 중 '최고의 만능 무선 청소



기'로 선정했다. 물걸레 기능을 비롯한 청소 성능은 물론, 집안 각 공간을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다양한 액세서리와 착탈식 배터리까지 높이 평가했다. "단

하나의 기기로 쓸고 닦기를 원한다면 제트만큼 다재다능한 제품은 없을 것"이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유명 소비자 매거진 '굿하우스킹'도 삼성 제트를 "다양한 기능과 탁월한 흡입력을 모두 갖춘 제품"이라며 96점(100점 만점)의 높은 점수를 줬다. '최고의 스틱형 청소기' 중 하나로 추천하기도 했다.

/김재용 기자